

행복



김 주 식 의
세태 만화경

그날 저녁에도 빵틀 뒤집는 소리가 요란했다. 반죽 재료는 간당간당했다. 내가 사는 동네 초입에 생긴 명물 얘기다. 봉어빵 포장마차. 노점 크기부터 픽 인 상적이다.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포장틀을 쳤다. 어설플 뜨겁게 해도 경 제적인 구조다. 빵틀 수도 적어 노는 게 없다.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경 제원칙이 읽힌다. 그러나 운영형태를 보 면 욕심이 없어 보인다. 하루 먹고살 분 량만 판다. 그 소박한 경영철학이 그 재 료가 바다날 무렵이면 줄을 세운다.

규모를 확장해 판매량을 늘릴 만도 한 데 아주머니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모 양이다. 밀가루 반죽 통은 곧 비어졌고, 노점의 천막도 걸었다. 아주머니의 얼굴 에 행복감이 묻어났다. 길보통이에 덩그 러니 홀로 남은 포장마차. 길포장은 아 주머니의 옷처럼 무척 낡아 너털거렸다. 그 수수한 모습들을 보는 순간, 불현듯 사람들이 말하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에까 지 미친다. 봉어빵 포장마차는 풍성한 행복을 만드는 공장이었다.

갓 구워낸 봉어빵은 따스했다. 봉지에 든 봉어빵은 허연 김을 퍼 올렸다. 봉어 빵의 그 온기가 식을세라 봉지를 품안에 넣고 동동걸음을 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세상을 떠난 내 아버지가 그랬다. 그땐 동그랗게 생긴 풀빵이었 다. 탱글탱글했다. 바삭거렸고, 팔소가 쏘아지며 김이 모락거렸다. 그때는 몰랐 지만 그 따스함을 가족들이 온전히 맛보 게 해주고 싶어 아버지는 얼마나 종종걸 음을 했던 걸까. 그런 장면이 애달파서 나도 봉어빵을 품는지도 모른다.

꼭 요맘때 봉어빵을 먹으면 이런 향수 가, 뜨거운 정과 감동이, 어떤 위안이 가 슴으로 차오른다. 봉어빵의 행복! 천원 짜리 지폐 한 장으로 서너 개의 소담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될 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큰 부피의 행 복을 누리게 해주는 풍경들이 여기저기 서 펼쳐진다. 봉어빵을 한 입 깨물며 열 굴이 환해지는 동네 꼬마들. 집에서 기 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떠올리며 한 봉지 씩 사들고 품에 넣고 가는 사람들. 덩으 로 한 개 더 얹어주는 정겨움.

작고 소소한 것에서 느끼는 행복! 봉 어빵 한 개의 행복이 이렇게 일상의 삶을 연소시킬 새롭고 산뜻한 힘을 주고 있었 다. 춥고 마음이 스산할 땐 그런 풍경 속 으로 풍덩 빠지고 싶은 까닭이다. 봉어 빵 포장마차를 만나면 발걸음이 먼저 앞

고 그곳으로 재촉한다. 행복을 어찌 수 치로 잴 수 있을까. 봉어빵은 그러나 관 념으로 서성거리는 행복을 구체적인 온 도로 전해주고 있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 것이다. 거기에는 일상을 다독여 주는 맑은 영혼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보니 소소한 것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우리 주변에 많다. 멀리 있 는 것도, 큰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도, 그 려고 거창한 것도 아니다. 시야를 넓 히면 공짜도 널렸다. 절정으로 달려가는 이 겨울, 산과 강, 들판을 덮은 흰 눈을 보라. 그 설경을 보고 느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마는 그것이 전해주는 행복의 부피만큼 절감했는지? 영혼이 없는 허상만 본 건 아닌지? 날개로 300원 에 불과한 그 소소한 봉어빵 한 개가 그 려고 물어오는 것만 같다.

산과 강은 계절별 옷을 갈아입고 나와 세상을 즐겁게 한다. 비, 바람, 눈, 물안개 같은 날씨는 이런 풍경을 아름답게 색을 입히는 질료들이다. 휴자는 자연에서 행 복을 얻으려면 그 풍경 속 주인공이 되라 고 했다. 주변의 공짜 눈으로 흘리 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 행복을 느끼 라는 주문일 것이다. 여기엔 대전제 하나 가 있다. 그것들의 노고에 늘 감사하라는 것. 소소해서 주변 이웃의 고마움을 느끼 지 못하고 있는 행복이 있는지? 되짚게 하는 봉어빵이다. /인문인-세태평론가

아모레퍼시픽 故 서성환 선대회장 15주기 추모식

사내 추모방송·장원기념관서 참배



아모레퍼시픽 창업자 서성환 회장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장원기념관과 전국의 사업장에서 창업자 서성환 선대 회 장 영면 15주기 추모식을 진행한다고 9 일 밝혔다.

2003년 1월 9일 타계한 장원(粧源) 서 성환 선대 회장은 창업 이래 아모레퍼시 픽을 일구어낸 창업자다. 대한민국 화장 품 역사의 선구자이자 나눔과 실천을 통 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인, 차(茶) 문 화를 계승·발전시킨 다인(茶人)으로 평 가받는다. '아름다움과 건강으로 인류에 공헌하겠다'는 창업자의 의지는 아모레 퍼시픽의 소명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 오고 있다.

이날 전국의 아모레퍼시픽 사업장 임 직원은 사내 추모 방송을 통해 창업자의 뜻과 업적을 기리고 아모레퍼시픽 원로 임원 30여 명은 고인의 추모 공간인 장원 기념관을 찾아 선영을 참배한다. 이번 주에는 신임 팀장급 직원들의 장원기념 관 방문이 이어지게 된다.

앞서 지난 2일 아모레퍼시픽그룹 신본

사에서 열린 2018년 시무식이 후에는 아모레퍼 시픽 현직임원이 참여한 추모식이 거행됐다.

추모식에서는 지난해 신본사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하고 세 번 째 용산 시대를 시작한 의미를 담은 '아모레퍼시픽그룹 신본사 준공 인가증'과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한 '3억 달러 수출의 탑'이 봉정됐다.

이날 전국의 아모레퍼시픽 사업장 구 내식당에서는 점심시간에 선대 회장의 창업 정신이 깃든 추모 음식 '장떡'이 제 공된다.

아모레퍼시픽은 추모식을 통해 창업자 정신을 계승하고 2018년에도 '원대한 기 업(Great Brand Company)'을 향한 아 름다운 향해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미래에셋박현주재단 5년간 희망도서 7만권 지원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전국 아동복지 시설 등을 통해 책이 필요한 청소년들에 게 도서를 지원하는 '제5회 미래에셋 희 망듬뿍(book) 도서지원'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복지시 설 및 초·중·고교 교사의 추천으로 대상자 1352명을 선발해 작년 동안 2회에 걸쳐 1인당 12권씩 총 1만6200여권의 책을 전 달했다. 희망듬뿍 도서지원 사업을 시작 한 이후 지금까지 총 7만권(7만1772권) 이 넘는 도서를 지원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희망듬뿍 도서지 원은 아이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확립하 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각자 상황에 맞는 맞춤식 도서를 선물하는 사업이다. 도서관이나 시설에 기증된 도서를 전채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빌빌딩. /연합뉴스

가 '공유'하는 것이 아닌 개인별 맞춤 도 서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래에셋은 도서지원 사업을 통해 학 생들에게는 책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교 사들에게는 독서교육의 역량을 강화하 는 자기개발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김민호기자 kmh@

'약발' 안 먹히는 가상화폐 경고



기 지 수첩
안 상 미
(파이낸스&마켓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잇단 경고가 도대체 '약발'이 안 먹히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이라며 내놓을 수록 다른 나 라보다 한국에서 시세가 더 비싼 '김치 프리미엄'은 확대됐고, 이런 '대박'을 자 신만 놓칠 수는 없다며 뒤늦게 뛰어드는 '코린이(코인+어린이)'만 늘어났다.

정부의 경고에 힘이 빠진 것은 처음부 터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스텝이 꼬일대 로 꼬인 탓이다.

지난달 말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검토 중이라는 발표에 가상화폐 가격은 순간 급락했다. 그러나 해당 거래소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폐쇄는 사실 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분위 기는 반전됐다. 정부의 괜한 으름장 처 럼 여겨진 셈.

지난 8일 금융위원장의 경고 역시 크 게 다르지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더 나아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이른 바 위장(전산·해킹)사고 가능성이나 시 세 조종, 유사수신 부분에 대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철저히 조사하 겠다"고 강조했다.

공식 브리핑이 끝난 이후 가상통화 거 래소에 대해 어떻게 직접 조사할 지를 구체적으로 묻자 이번엔 다른 답이 돌아 왔다.

금융위 실무자는 "위원장님께서 너무 나가신 것 같다"며 "아직까지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직접 조사할 방안은 없다"고 정정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고 만으로 문을 열 수 있는 통신판매업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허가제로 바꾸고 제도권으로 끌어 들였다. 정부의 공식 인정 처럼 여겨지며 투기열풍이 거 세졌다.

중국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 했다. 역시 투기열풍이 잦아들기는 커녕 사행화되는 역효과를 봤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중간 어디쯤이 다. 가상화폐 시장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어떤 방법을 써도 가격 을 잡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느 부작 용을 감내할 지를 선택해야 할 시기가. 하루 수 조원이 거래되는 시장을 지하에 돌 지, 지상에 돌 지 말이다. /smahn1@metroseoul.co.kr

인사

- ◆ 메트로신문 (승진) ◇차장대우 △편집국 파이낸스&마켓부 안상미 △편집국 산업부 양성운 △편집국 편집부 오규정 △광고마케팅팀 AD기획부 신동렬 (전보) △편집국 정책사회부 차장대우 한용수 △편집국 정책사회부 이범중 △편집국 정책사회부(세종시) 최신웅 △온라인뉴스부 연예·스포츠팀 신원선 △온라인뉴스부 연예·스포츠팀 김민서
- ◆ 한국국토정보공사 (신규) △부산울산지역본부 장 여원찬 △충북지역본부장 이종환 (전보)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주한돈
- ◆ 한국국방연구원 △기획조정부장 조관호 △안보

- 전력연구센터장 유영철 △군사발전연구센터장 진재일 △국방자원연구센터장 김중태 △국방인력연구센터장 독고 슌 △전략투자분석센터장 이호석 △행정지원부장 최원장 △정책개발실장 고원 △대의협력실장 박상현 △자식정보실장 최선규 △감사실장 오태인
- ◆ 포스코 (승진) ◇부사장 △철강사업본부장 정택 △철강생산본부 포항제철소장 오형수 △전무 △철강생산본부 프로젝트 선재제어냉각PJT팀장 박용규 △정도경영실장 노민용 △경영지원본부 원로2실장 정규진 △CSP(브라질) 김동호 △철강 생산본부 포항제철소 FINEX상용화추진부장 이상호 △경영지원본부 HR혁신실장 양원준 △철강생 산본부 포항제철소 STS담당부소장, POSTRIP기 술개발 추진반장 겸임 이은석 △기술투자본부 기 술연구원 프로젝트 HIFAME연구PJT팀장 김선규 △철강생산본부 철강생산전략실장 이시우 △철강 사업본부 철강사업전략실장 김광수 △가치경영센 터 해외사업관리실장 임승규 △철강사업본부 철 강술루션마케팅실장 주세돈 △철강사업본부 스테 인리스마케팅실장 배재택 △기술투자본부 정보기 획실장 정덕균 △POSCO-Maharashtra 법인장 방길호 (신규) ◇상무 △안윤기 △이유경 △송용 삼 △이희근 △안근식 △배철민 △한형철 △김진

- 호 △남재복 △홍삼영 △이상호 △김상균 △서인 식 △이백희 △정범수 △이주협 △윤훈 △염기천
- ◆ 삼성물산 (승진) ◇대표이사 사장 △건설부문 장 이영호 △상사부문장 고정석 ◇대표이사 부사 장 △리조트부문장 정금용
- ◆ NH투자증권 (신규선임) ◇부장 △Global Trading Center 김승현

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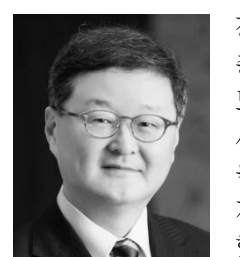
- ▲김주현씨(전 경북도교육감) 별세, 정기가장 실 내테니스장 대표)·상기씨(김마누 대표이사) 부친 상, 허영(경북학교안전공제회 부장)·김종세씨(한 국토지주택공사 부장) 장인상= 8일 용산안동병 원, 발인 12일 오전 8시, 054-820-1494
- ▲김동수씨 별세·김민석(주동회건축 대표) 민환 씨(상성SDI연구소 수석) 부친상·허무호씨(MBC 부국장) 빙부상, 이해영씨(경기 화성 니루고 교사) 시부상=8일 대구 웰니스1004병원, 발인 10일 오후 12시 30분, 053-522-0444
- ▲최영욱씨 별세, 박준(뉴시스 대구경북취재본부 기자)씨 외조모상= 9일 오후 12시40분, 청주의료 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1일 오전 8시, 043-279-0144



한국증권, 2018 첫 KLPGA투어 개최 조인식 한국투자증권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유상호 사장과 SBS 플러스 김계홍 사장,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강춘자 수석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 KLPGA투어 '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 with SBS Golf' 대회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8년 첫 KLPGA투어 대회로 오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베트남 호치민 트윈도브스 골프클럽에서 개최된다. /한국증권

밀레니엄 서울힐튼 35년만에 첫 한국인 총지배인

씨디엘호텔코리아, 이종현씨 선임



밀레니엄 서울힐튼에 첫 한국인 총지배인이 선임됐다.

씨디엘호텔코리아는 밀레니엄 서울힐튼의 신임 총지배인으로 이종현(51·사 진)씨가 부임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호텔 개관 35주년을 맞이하는 밀레니엄 서울힐튼 첫 한국인 총지배인이다.

이 총지배인은 신라호텔 국빈 VIP 담 당 지배인과 마이스 팀장, 서울클럽 부 총지배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상무이사, 리츠칼튼 서울 마케팅 본부

장, 서울 가든호텔 총지배인, 스탠포드 코리아 대표이사 겸 총지배인, 차움 라이프 센터 총지배인 등을 역임 했다.

또 관광협회 중 앙회 등기이사, 관광협회 중앙회 관광호텔업 위원회 부위원장, 문화관광부 복합 리조트 선정 심사위원, 관광협회 중앙회 호텔 등급 심사위원 등도 거쳤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metr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 정 규
편집국장 이 정 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3
독자센터 021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206